



2024년 11월

소그룹 참여자용



너희가

소그룹 리더 모임

갈6:2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 우리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 2-3
 - 서로의 어깨에 어떤 짐이 올려져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 영성의 건강검진
- SESSION 01 갑자기 감사? | 4-6
- 읽을거리 과학으로 밝혀낸 감사의 효과 | 7
- SESSION 02 감사는 표현이다 | 8-10

우리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 **서로의 어깨에** 어떤 짐이 올려져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부담감

좋은 부모로, 좋은 자녀로 역할을 다하며 사는 것이, 그리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리더로 사는 것이 모두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잘 유지하는 것도 부담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도계로 측정한다면 몇 도가 될까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혼자 힘으로 잘되지 않기도 합니다.

생각

여러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이상하리만치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 생각을 해매다가 가끔은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이나 수치심, 실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두려움이나 염려, 비판이나 정죄 등 부정적인 에너지에 이끌리는 것을 느낍니다.

재정

오늘 흘러야 할 땀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흘린 땀만큼 늘 열매를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은 넘치다가도 어느 날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관계

사랑과 지혜, 기다림보다 본능이 앞섭니다. 늘 잘해보려고 하지만 늘 잘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면서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길일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미래

미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2」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우리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 영성의 건강검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23-24]

아래 8가지 질문으로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봅시다. 가장 알맞은 숫자에 'O'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5점, 최저 1점)

점검표

1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과 관계는 어땠나요? 친밀함을 느꼈는지, 거리감을 느꼈는지 생각해 봅시다. 친밀하다고 느꼈던 수준에 따라 표시하세요.	1 2 3 4 5
2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주신 확신대로 반응했나요? 확신이 있는 정도에 따라 표시하세요.	1 2 3 4 5
3	기도 생활을 돌아볼 때, 믿음이 자라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이 많이 있었나요? 식사 전 기도는 잊지 않고 잘하고 있나요?	1 2 3 4 5
4	지체들과 '하나님 사랑', '신앙생활'에 관한 의미 있는 대화를 정기적으로 나누고 있나요? 아니면 대화가 일상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나요?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 따라 표시하세요.	1 2 3 4 5
5	현재 성취감을 맛보고 있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체 목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행동하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정도에 따라 표시하세요.	1 2 3 4 5
6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내게 말씀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최근에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에 따라 표시하세요.	1 2 3 4 5
7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열리거나 깊어지거나 안정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피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나요? 깊어지는 정도에 따라 표시하세요.	1 2 3 4 5
8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귀면서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과만 만나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정도에 따라 표시하세요.	1 2 3 4 5

점수표

32-40	대단히 훌륭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수전에 있는 사람에게 배우려 합니다.
24-31	훌륭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6-23	안정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주님과 관계는 지금보다 이전에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주 잊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0-15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금 깨닫고 비전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SESSION 01 | 감사하기 감사?

2024년 10월 25일 | 캔사스중앙교회 | 소그룹 모임

▶ 가볍게 근황토크

- ① **【기초】**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눠봅시다. 감사한 일이 없다면 좋았던 일을 나눠봅시다.
- ② **【고급】**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혹은 생각이나 성경구절 등) 있었다면 나눠봅시다.

▶ 오늘의 성경 읽기 _ 데살로니가전서 5:16-18

- 본문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합니다.

▶ 성경과 함께 읽으면 좋은 이야기

쥐어짠 100가지 감사의 능력

전광 목사님이 쓰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에 나온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미국에서 한인목회를 하신 안남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어느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부임해 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소위 ‘왕언니’로 불리는 한 권사님이 계셨다. ‘왕언니’ 하면 벌써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런데 안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 왕언니가 담임목사 세 명을 쫓아낸 전력이 있다고 한다. 새로 부임한 신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분과 잘 지내야 목회가 순탄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소한 일로 안 목사님과 왕언니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 게다가 왕언니가 얼마나 뒤끝이 긴지, 목사님이 아무리 화해를 시도하고 애를 써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뿌리치고는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다. 이러니 새로 부임한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위에 눌릴 만큼 마음이 불안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날 결심을 하기도 했다. 왕언니가 네 번째 목사님을 쫓아내는 시점이 온 것이다.

그런데 안 목사님은 바로 사표를 내지 않고 비장한 각오로 3일간 금식기도를 하기로 했다. 3일간 금식기도를 하면서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면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다.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목사님은 늘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호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본인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금식하면서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안 목사님은 금식기도 후에 큰 결심을 했다. 관계가 깨진 권사님에 대해 감사한 내용을 떠올리며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 시간 정도 공공거리면서 적었더니 50여 가지 감사가 나오더라. 사실, 그 정도 찾은 것도 대단한 것 아닌가?

이때까지만 해도 진정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쓴 것이다. 마음에 별 감동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찢어버릴까 하다가 ‘기왕 쓰기 시작한 것 100가지를 채워보자’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쓸 것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뭔가 억울하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아 억지로 쥐어짜고 쥐어짜서 새벽이 되어서야 100가지 감사를 다 채웠다. 참 귀한 목사님 아닌가?

그렇게 100가지 감사를 채우고 나니까 왕언니가 아니라 목사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록 억지로 쓴 것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쥐어짜듯이 생각하다 보니 목사님 마음에 문득 '이 권사님도 나를 괜찮은 면이 있는데 왜 그렇게 미워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자기 눈에 그 권사님에 대한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사실 어떤 사건으로 사람과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 순간 상대에 대해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버린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갱게 보이듯이, 한번 미움의 안경이 씌워지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밍다. 오죽하면 "준 것도 없는데 밍다"라는 말이 있겠는가?

이렇게 목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지만, 문제는 그 권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마음을 전할 수 없었다고 한다. 용기가 안 나서 직접은 못 전하고, 결국 남들이 다 자는 새벽에 그 권사님 집 우체통에 몰래 100가지 감사를 적은 종이를 넣어두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목사님은 혹시 이 일이 왕언니를 더 노엽게 한 것은 아닌지 두려움 가운데 지냈다. 주일이 되었고 마침내 왕언니 권사님이 교회에 나타났다.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친 왕언니는 평소와 달리 두 팔을 높이 들고 달려와서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이야기하더라.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언니 권사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 100가지 감사로 말미암아 극적인 화해를 경험한 안 목사님은 그 때 얻은 귀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100 감사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고 한다.

▶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다음 성경구절을 찾아 함께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4-5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in - 말씀 안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5:16-18) 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나요?

- 또 너희는 많은 () 가운데서 ... **살전1:6**
- 아무도 이 여러 ()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 **살전3:3**

여러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러한 지침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①()의 기쁨으로 ②()을 받아 ... **살전1:6**

- ① ()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 ② ()을 사모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에 대한 의존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들어봅시다.

²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²⁵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고 하나님을 ()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²⁶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 **행16:24-26**

▶ out - 우리의 삶으로 _ 감사를 결단하자

먼저 감사를 결단합니다.

아이들이 묻는다. “양치질을 왜 해야 하나요?”, “아침에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아빠가 아이에게 위생적으로 양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이제 양치질 즐겁게 해야지!”

안타깝게도 이런 아이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나 양치하기 싫어. 그냥 잘래.”

충분히 설명을 해줘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대신 명령하십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를 따지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군인처럼 명령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순종함으로 이론과 논리를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아보세요.

함께 읽었던 안남웅 목사님과 왕언니 권사님의 이야기가 먼저 감사를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소리 내어 읽어볼 성경구절 _ 시34:1-3,

【읽을거리】

과학으로 밝혀낸 감사의 효과

잠깐 멈춰 자신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시스템은 두려움에서 탈출해 좋은 상태로 이동한다. 이는 마치 승리에 도취된 감정을 느낄 때와 유사한 감정의 선순환을 만든다.

마이클 맥클로우, 마이애미대학 교수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엔돌핀은 기쁘고 즐거울 때 솟아난다. 한편,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은 우리가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솟아난다.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암효과를 내는 다이돌핀이 솟아나길 원한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탈벤 사하르, 하버드대학 교수

행복이라는 감정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계발이 가능하다. 행복을 계발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마틴 셀리그만, 펜실베이니아대학 교수

감사하는 마음은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 숙면을 취하고 싶으면 양을 세기보다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는 것이 좋다. 또한 우리의 실험에 따르면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연봉을 2만 5,000달러 더 받았고,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9년이나 길었다.

로버트 에먼스, 캘리포니아대학 교수

SESSION 02 | 감사는 표현이다

2024년 10월 25일 | 캔사스중앙교회 | 소그룹 모임

▶ 가볍게 근황토크

- ① **【기초】**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눠봅시다. 감사한 일이 없다면 좋았던 일을 나눠봅시다.
- ② **【고급】**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혹은 생각이나 성경구절 등) 있었다면 나눠봅시다.

▶ 오늘의 성경 읽기 _ 누가복음 17장 11-19절

- 본문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합니다.

▶ 성경과 함께 읽으면 좋은 이야기

1990년대에 활동하던 장 토미니크 보비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잘생긴 외모, 화려한 언변으로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나가던 사람이 43세가 되던 해에 완전한 절망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 락트-인 증후군 (Locked-in syndrome)에 빠져 의식은 있지만 전신마비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머리로는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데, 몸은 꼼쩍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체가 다 마비되었고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왼쪽 눈꺼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눈의 깜박임으로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을 한 번 깜박이면 '예', 눈을 두 번 깜박이면 '아니오' 하는 식입니다. 이것을 알파벳으로 연결시켜 글을 썼습니다. 어떤 날은 문장 하나를 쓰는데 하룻밤을 꼬박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잠수종과 나비」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밀려오는 감동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꿈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이 짧은 한 마디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시절 교통사고로 큰 화상을 입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 낸 이 교수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지선 교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화상으로 눈썹이 사라지고 나니 하나님의 숨씨인 눈썹이 대단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땀이 흐르면 눈으로 들어가자고 않고 옆으로 흐르도록 빗물받이 역할을 하는 것이 눈썹이더랍니다. 눈썹을 잃고 나니까 땀이 자꾸 눈으로 들어가서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장도미니크 보비가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쓴 글을 읽으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미련함을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미련함이란,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나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는 것조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미련함 아닐까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현실의 감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한 목사님이 이십 대 자매와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 때는 여드름도 나고 얼굴이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며 불평도 많을 나이지만, 내 나이쯤 되어보면 ‘이십대’라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걸 알게 돼.”

나이가 들면 여드름도 안 난다. 여드름이 나면 여드름이 나서 아름다운 것이다. 나이가 들어 되돌아갈 수 없는 지금에 와서야 ‘아, 그 이십 대 때가 아름다웠는데…」 라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나고 깨닫지 말고, 당겨서 깨닫고 감사하며 인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in - 말씀 안으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 고침 받은 열 명의 나병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침 받은 열 명의 나병환자 중에서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 신앙은 ()다

신앙은 거래일까요? 거래라면 나병환자를 고쳐준 이야기는 왜 14절에서 끝나지 않고, 17절의 질문이 계속될까요?

- 14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 17절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 생각해볼 질문

-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병 고침을 주신 후 아홉 명을 다시 찾으신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나요?

2. 감사는 ()이다

병 고침을 받은 아홉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 다. 그렇다면 아홉 명 모두 감사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어쩌면 ‘속으로’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생각해볼 질문

- 여러분은 일상에서 감사를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나요?
- 부부 사이에서, 혹은 가까운 이들 사이에서 당신이 ‘완성하지 못한 감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3. 감사는 더 큰 ()를 불러온다

열 명의 고침 받은 환자 중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의 너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 **눅17:19**

* 생각해볼 질문

- 우리가 작은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믿나요?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 우리는 종종 육신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지만,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더 큰 감사임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받은 영적인 축복에 대해 감사했던 순간이 있나요?